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 한-EAEU FTA의 의의와 시사점

목 차

■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 한·EAEU FTA의 의의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러시아의 경제 동향과 한국과의 무역·투자 동향	3
3. EAEU를 통해 러시아와 FTA 체결 시 경제적 기대 효과	9
4. 시사점	13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 한·EAEU FTA의 의의와 시사점

■ 개요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러시아는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원유 매장량 세계 6위, 천연가스 세계 2위, 석탄 세계 2위 등 풍부한 에너지를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러시아의 인구 규모는 약 1억 4,300만 명으로 세계 9위 규모이며, 러시아의 영토 면적은 약 1,700만km²로 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규모에 달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 EAEU 체결, FTA 추진 등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2008년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논의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속한 EAEU FTA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러시아의 경제 동향과 한국과의 무역·투자 동향

첫째, **(경제 동향)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하락, 서방 경제제재 등으로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7년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가 하락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러시아 경제는 유가 안정, 임금 인상,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호전되면서 회복중이다. 이에 따라 IMF는 지난 7월 전망에서 러시아 경제가 2016년 -0.2%에서 2017년 1.4%, 2018년 1.4%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무역 동향)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입이 감소했으나 2017년 들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2016년 무역수지는 2013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수출 29.5%, 수입 27.4% 증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EU로 전체 러시아 수출의 45.7%, 수입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러시아 수출의 3.5%, 러시아 수입의 2.8%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투자 동향) 2016년 러시아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2년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역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로 2년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반등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넷째, **(한국과의 무역 동향)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 품목은 원유 등 에너지이며,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 3년간 위축되었던 수출입이 2017년 들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2014~2016년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 석유, 석탄 등도 동반 하락했다. 그러나 2017년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60.6%, 대러시아 수입 44.7% 증가를 기록하며 양국간 무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과의 투자 동향)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2010년대 들어 정체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의 약 61.2%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규모는 2010년대 들어 정체된 모습이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운송용 기계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투자에 그치고 있다.

■ EAEU를 통해 러시아와 FTA 체결 시 경제적 기대 효과

첫째, **(관세 인하에 따른 대러시아 수출 증가)** 회귀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수입관세율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EAEU FTA 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1%p 인하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자동차 관세 인하 시 시장 점유율 상승)**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1~2위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관세 절감분 만큼의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러시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 품목 수출 금액의 약 15.7%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에 20~25%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러시아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시장점유율이 현재 21.8%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투자 유입 효과)** 한·EAEU FTA로 러시아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칠레, 호주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들은 FTA 체결 직후 대한국 투자를 확대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440억 달러를 해외

에 직접 투자하였으나, 한국에 유입된 투자 규모는 이 중 0.04%에 불과하다. 만약 한·EAEU FTA로 한국이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의 약 1%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연간 약 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넷째, (에너지 수급 다변화)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4%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중동 국가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83.7%로 중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규모 경제 블록과의 FTA 완성)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은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으로서, EAEU FTA 체결 시 대규모 경제 블록과의 FTA를 완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이 EA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FTA 체결 국가 시장 규모는 75.2%에서 77.2%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러시아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른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증가 추정 >

관세율 인하폭	1%p	5%p	10%p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	3.3%	16.6%	3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2016년 수출 기준.

■ 시사점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EAEU FTA의 조속한 가시화를 통해 수출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러시아 및 EAEU 국가들과 우호적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 산업 협력 확대 등으로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나아가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사업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넷째, 한·EAEU FTA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신북방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 개요

○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필요성)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

- 러시아는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에너지를 보유한 자원 부국

-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2016년 현재 세계 12위이며, 수출은 세계 15위, 수입은 세계 24위, 수출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세계 19위의 국가
- 러시아의 인구 규모는 약 1억 4,300만 명으로 세계 9위 규모이며, 러시아의 영토 면적은 약 1,700만km²로 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규모
- 러시아의 주요 자원은 철광석, 석탄, 원유, 비철금속, 가스 등이며, 이 중 원유는 세계 6위 규모로 세계 총 매장량의 6.1%, 천연가스는 세계 2위(17.4%), 석탄 세계 2위(17.6%) 등의 매장량을 보유

- 러시아는 WTO 가입, EAEU 체결, FTA 추진 등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

- 2015년 1월 1일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출범하였으며, 현재 가입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 5개국
- EAEU는 2025년까지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해 무역장벽 제거, 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통합 의약품 시장, 역내 통합 전력시장,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형성 등 목표 설정¹⁾
- 러시아는 EAEU를 통해 구 CIS 지역의 경제 통합과 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EU, 미국,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대응
- 또한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156번째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대외 경제 관계 안정성을 제고
- 러시아는 EAEU를 통해 2015년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으며, EFTA,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란 등과도 FTA 체결을 위해 협상중

1) Eurasian Development Bank(2017),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2017', Eurasian Development Bank Centre for Integration Studies Report, 43.

-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2008년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양국 정상 상호 방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발전
 - 2008년 9월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고위인사 교류 및 정부·민간 차원의 협력 채널을 확대
 - 2017년 9월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 초대를 통해 한·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핵 문제, 한러 경제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러시아는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높은 경제 협력 효과가 기대
 -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은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한 반면 산업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판단

- 러시아를 포함한 EAEU와의 FTA 협상 개시를 위해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협의회 등을 개최했으며,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논의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
 - 한국과 러시아의 FTA는 2005년 11월 양국 정상이 체결한 Action Plan에서 공동전문가 그룹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이 시작²⁾
 - 2015년 EAEU 출범으로 러시아 대신 EAEU가 대외 협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국을 대표하여 FTA 협상을 진행하므로 러시아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EAEU FTA를 체결해야 함
 - 한국과 EAEU는 FTA를 위해 2016년 8월 민간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4월까지 3차례의 정부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목표

- (연구목적) EAEU FTA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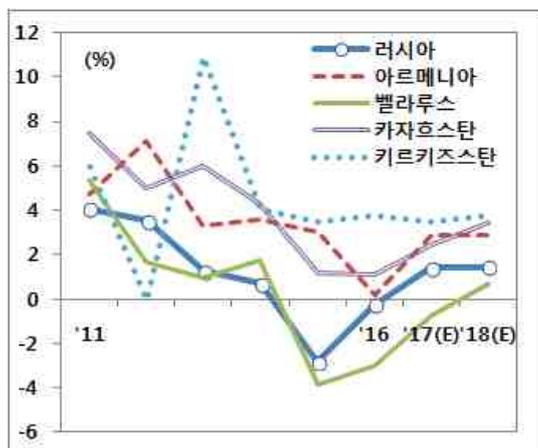
2) 정분도 외(2014), ‘한·러 FTA 현황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제10권 제3호, 2014년 6월.

2. 러시아의 경제 동향과 한국과의 무역·투자 동향

○ (경제 동향)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하락, 서방 경제 제재 등으로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7년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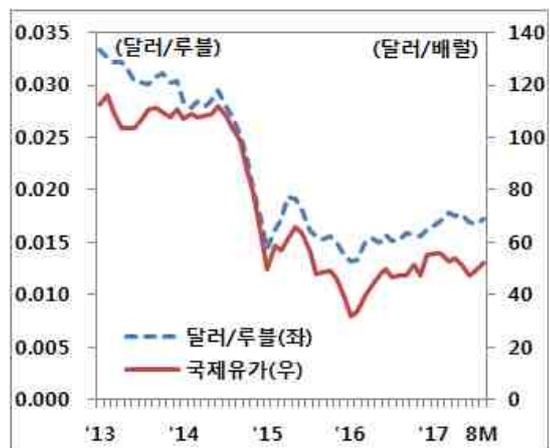
- 러시아는 저유가, 경제 제재 등으로 지난 2년간 마이너스 경제 성장 기록
 - 수출의 상당 부분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가 하락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EU 등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정책을 2014년부터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 위축, 금융조달비용 상승 등의 하방리스크 발생
- 러시아 경제는 원자재 가격 침체에서 벗어나 2017~18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러시아 경제는 유가 안정, 임금 인상,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호전되면서 회복중
 - IMF는 지난 7월 전망에서 러시아 경제가 2016년 -0.2%에서 2017년 1.4% 2018년 1.4%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EAEU 4개국에 대해서는 2017년 아르메니아 2.9%, 벨라루스 -0.8%, 카자흐스탄 2.5%, 키르기즈스탄 3.5%의 성장률을 전망

< 러시아 및 EAEU 4개국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 유가 및 루블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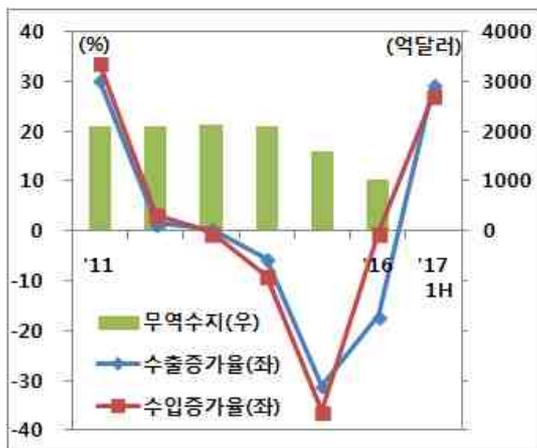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주 : 브렌트유 기준.

○ (무역 동향)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입이 감소했으나 2017년 들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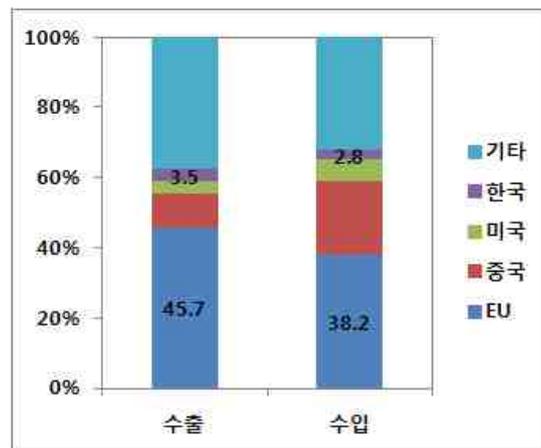
- 러시아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2016년 무역수지는 2013년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러시아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 무역(수출+수입) 규모가 8,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2,000억 달러를 상회
 - 그러나 국제 유가가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면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입이 감소
 - 이에 따라 무역 규모는 2013년 약 8,400억 달러에서 2016년 4,700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무역수지 역시 동기간 2,1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감소
 - 그러나 2017년 들어 수출 29.5%, 수입 27.4%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
-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EU로 전체 러시아 수출의 45.7%, 수입의 38.2%를 차지
 - 2016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무역 지역은 EU로 전체 러시아 수출의 약 45.7%, 전체 러시아 수입의 약 38.2%를 차지
 - 수출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10.2%로 1위, 중국이 9.8%로 2위, 독일이 7.4%로 3위이며 한국은 3.5%의 점유율로 7위
 -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이 20.9%로 1위, 독일이 10.7%로 2위, 미국이 6.1%로 3위이며, 한국은 2.8%의 점유율로 8위

< 러시아 수출입 추이 >



자료 : UN Comtrade. Bloomberg.

<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 >



자료 : UN Comtrade.

주 : 2016년 기준.

○ (투자 동향) 2016년 러시아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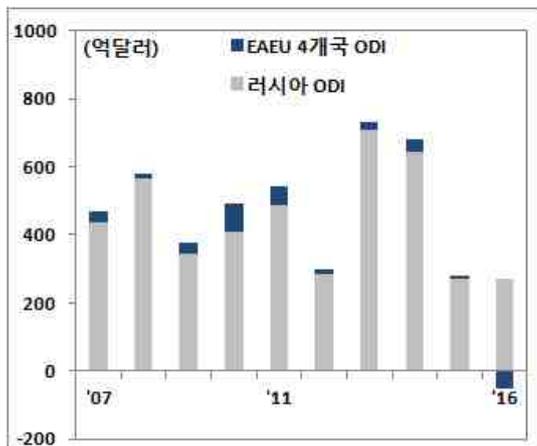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2년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규모가 위축

-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약 440억 달러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7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5.2%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2년간은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규모가 약 270억 달러 내외로 위축
- 러시아를 제외한 EAEU 4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30억 달러 수준

- (외국인직접투자)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로 2년간 감소한 후 2016년 반등하면서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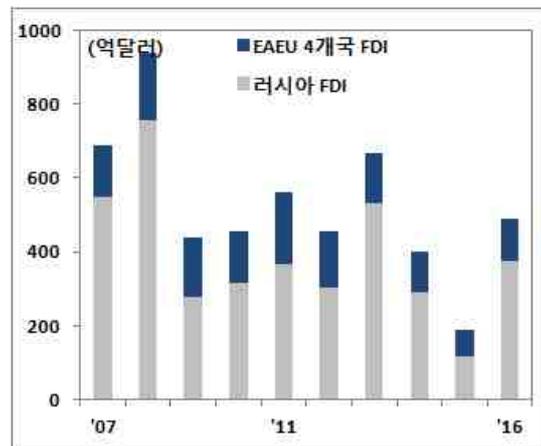
- 해외에서 러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약 400억 달러
-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로 2014~15년 외국인직접투자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370억 달러 투자가 유입되며 반등
- 러시아를 제외한 EAEU 4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140억 달러 수준

< 러시아 및 EAEU 4개국 ODI 추이 (해외직접투자) >



자료 :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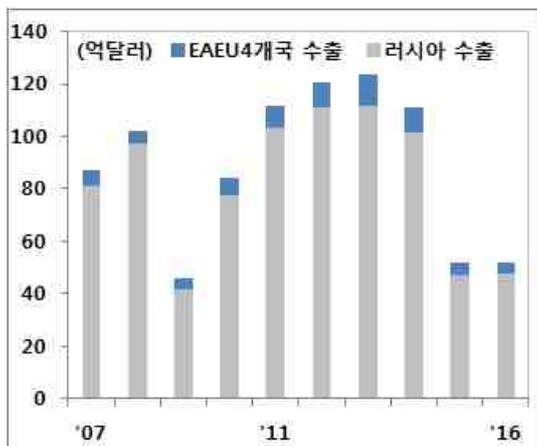
< 러시아 및 EAEU 4개국 FDI 추이 (외국인직접투자) >



자료 :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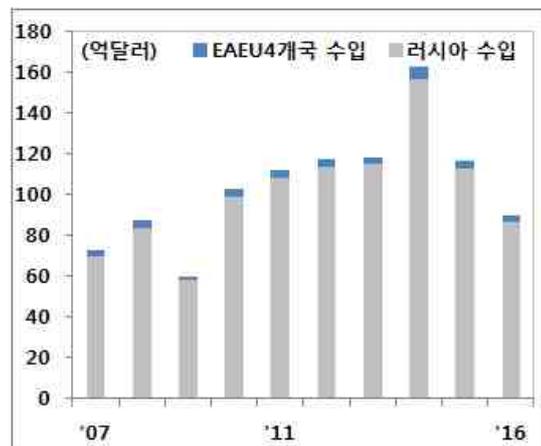
- (한국과의 무역 동향)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 품목은 원유 등 에너지이나, 러시아 경기 침체로 2014년 이후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 추세
- (러시아와의 무역) 저유가 및 서방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기 위축으로 2014년 이후 무역 규모가 감소
 - EAEU와의 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수입은 약 150억 달러의 규모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수출이 48억 달러, 수입 86억 달러로 위축
 - 최근 러시아와의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이후 저유가 및 서방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
- (EAEU 전체와의 무역) 러시아와의 무역 감소로 한국과 EAEU 5개국 전체의 무역 규모도 감소
 - 한국과 EAEU와의 무역은 수출 약 5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0%, 수입 약 9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2%를 차지
 - 이에 따라 한국은 EAEU와의 무역에서 2014년부터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6년 약 38억 달러 수준
 - 그러나 전반적으로 EAEU와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의 무역액 약 270억 달러 대비 2016년 무역액은 140억 달러에 불과해 2년 만에 약 절반 정도로 축소

< 한국의 대EAEU 수출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EAEU 수입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 품목) 한국은 러시아에 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수출 규모가 1/3로 급감

-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품목 1위는 자동차, 2위는 자동차 부품, 3위는 영상기기부품, 4위는 기타 기계류, 5위는 철강구조물로, 이 5대 품목의 비중은 전체 러시아 수출의 약 41.5%(2016년 기준)
- 이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013년 약 48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전체 러시아 수출의 43.6%까지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16억 달러로 3년만에 1/3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비중 역시 34.0%로 하락
- EAEU 4개국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는 의약품(HS3004), 벨라루스는 기체 펌프(HS8414), 카자흐스탄은 조제점결제(HS3824), 키르기스스탄은 편물(HS6004)이 1위 수출품이나 그 규모는 매우 작음(2016년 기준)

- (주요 수입 품목)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주로 원유, 석유 등 에너지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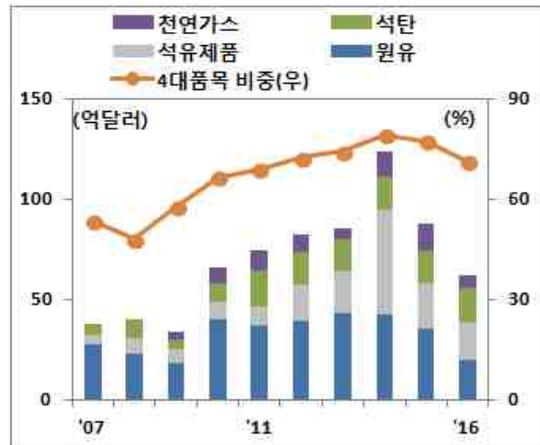
- 한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1위 원유, 2위 석유제품, 3위 석탄, 4위 천연가스, 5위 냉동어류(명태)
- 이 중 1~4위 품목인 에너지 품목의 수입 비중은 전체 러시아 수입의 약 71.2%
- EAEU 4개국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는 의류(HS6202), 벨라루스는 칼륨비료(HS3104), 카자흐스탄은 합금철(HS7202), 키르기스스탄은 식물류(HS1211)가 1위 수입품이나 그 규모는 매우 작음(2016년 기준)

< 한국의 대EAEU 주요 수출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HS 4단위 기준.

< 한국의 대EAEU 주요 수입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HS 4단위 기준.

○ (한국과의 투자 동향)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2010년대 들어 정체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소규모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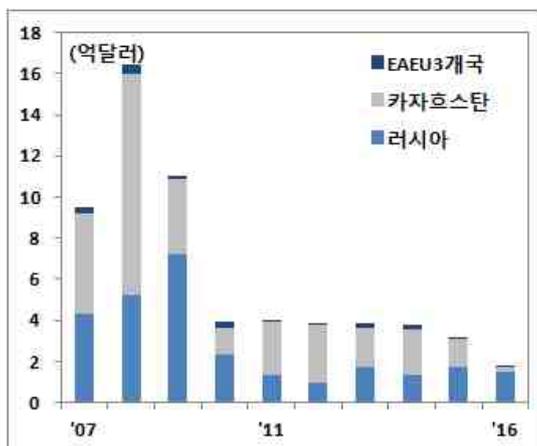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 한국의 대EAEU투자는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투자 규모가 정체

-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2008년 5억 2천만 달러, 2009년 7억 2천만 달러로 급증했으나, 이후 연간 1억 달러대의 투자 규모를 유지
- 러시아를 제외한 EAEU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큰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러시아와 유사한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투자 규모가 감소한 후 정체된 모습
- 지난 10년간 대러시아 투자의 약 61.2%가 제조업에서 이뤄졌으며, 대카자흐스탄 투자 1순위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33.6%의 비중

- (외국인직접투자)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운송용 기계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투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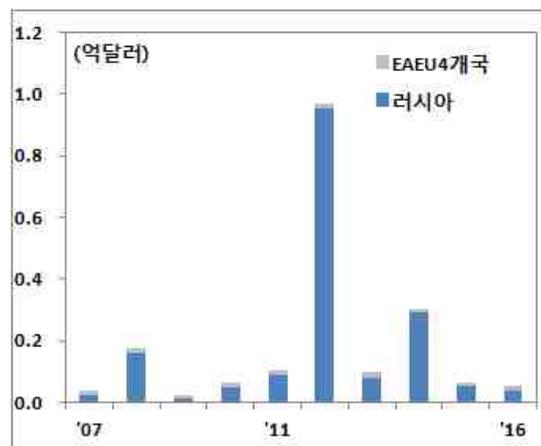
- EAEU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는 러시아로, 지난 10년간 약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
-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주요 업종은 운송용 기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집중
- 그러나 지난 10년간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규모 대비 약 6.3%에 불과

< 한국의 대EAEU ODI 투자
(해외직접투자) >



자료 : 수출입은행.

< EAEU의 대한국 FDI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 EAEU를 통해 러시아와 FTA 체결 시 경제적 기대 효과

○ (관세 인하에 따른 대러시아 수출 증가) EAEU FTA 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1%p 인하될 경우,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추정 방법 및 주요 가정

- EAEU FTA 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하된다고 가정
- 2000년~2015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러시아의 1인당 실질GDP, 원/루블 환율, 러시아 소비자물가,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수입 관세율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수입관세율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발생한 2009년과 서방국가의 러시아 경제제재 충격이 발생한 2014~15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더미 변수를 추가
- EAEU FTA 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하된다고 가정

- 추정 결과, EAEU FTA 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1%p 인하될 경우,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러시아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른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증가 추정 >

관세율 인하폭	1%p	5%p	10%p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	3.3%	16.6%	3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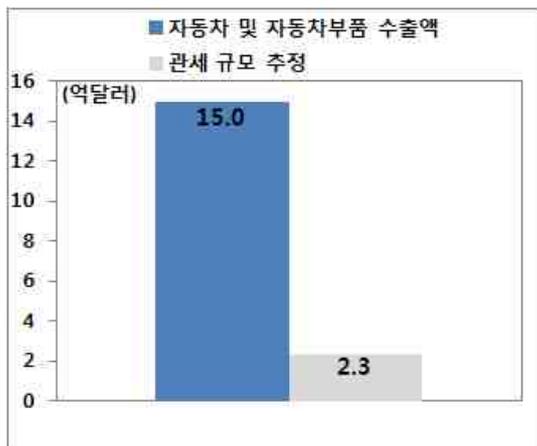
주 : 2016년 수출 기준.

○ (자동차 관세 인하시 시장 점유율 상승)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1~2위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관세 절감분 만큼의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가 기대

- 전체 러시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 품목 수출 금액의 약 15.7%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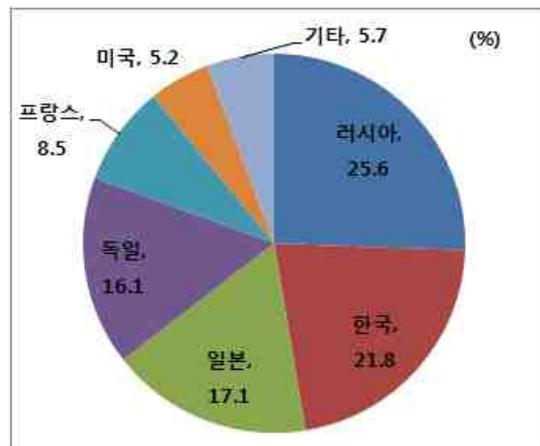
- HS10단위로 조사한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6년 약 15억 달러로 전체 러시아 수출의 31.4%를 차지
- 러시아는 수입되는 완성 자동차에 약 20~25%, 자동차 부품에 0~5%의 수입 관세를 부과³⁾
-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부품 관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자국 내 생산을 유도
- 2016년 기준 러시아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 기준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수출 금액 약 15억 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는 약 2.3억 달러로, 수출 금액의 약 15.7%에 해당

< 대러시아 수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규모 추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국가별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



자료 : 유럽 비즈니스협회.
주 : 2017년 상반기 기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전망

3) 예를 들어 HS8703231010 품목인 가솔린 세단형 1500cc~3000cc 이하의 차량의 관세율 부과기준은 ① 자동차 가격의 20% 또는 ② 엔진용량 1cc당 1.27유로이며,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부과됨.

- 2017년 상반기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자국산이 25.6%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21.8%로 전체 시장 2위, 해외 국가 중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 완성차의 20~25%에 달하는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러시아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

○ (투자 유입 효과) 한·EAEU FTA로 러시아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칠레, 호주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들은 FTA 체결 직후 대한국 투자를 확대
 -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약 54% 증가
 - 한국이 맺은 최초의 FTA 국가인 칠레의 대한국 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2004년 4만 달러에서 2005년 7백만 달러로 165배 증가
 - 대표적 자원 부국인 호주의 대한국 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에 전년대비 177% 증가
-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440억 달러를 해외에 직접 투자하였으나, 한국에 유입된 투자 규모는 이 중 0.04%에 불과
 -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해외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연평균 약 440억 달러
 - 그러나 한국에 유입된 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00만 달러에 불과
 - 이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의 0.04% 수준에 불과
- 한·EAEU FTA로 한국이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의 약 1%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연간 약 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됨
 - 2016년 러시아의 해외 직접투자는 약 272억 달러
 - 만약 한·EAEU FTA로 한국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의 1%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됨

○ (에너지 수급 다변화)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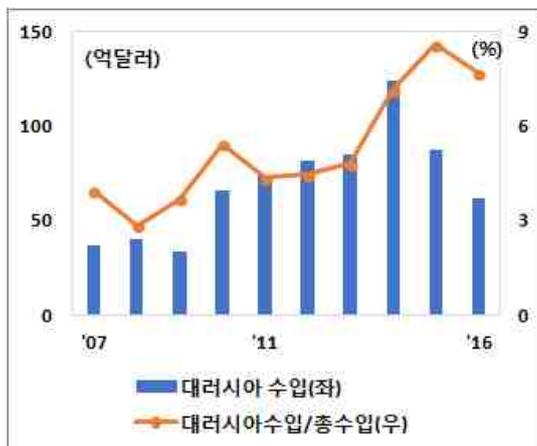
-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증가 추세

- 한국의 주요 수입 에너지원은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 2016년 한국은 4대 수입 에너지원을 약 802억 달러 수입했으며, 이 중 약 7.7%인 62억 달러 규모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7년 약 3.9%에서 2016년 7.7%로 상승 추세

- 한국은 중동 국가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83.7%에 달해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전체 석탄 수입의 약 18.7%인 17억 달러를 수입해 호주에 이어 한국의 2위 석탄 수입국
- 원유는 러시아로부터 약 4.4%인 20억 달러를 수입하며 한국의 원유 수입국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6위 수입국은 모두 중동 국가로 전체 수입의 약 83.7%에 달함
- 석유제품은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입의 약 16.1%인 19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17.0%)에 이어 한국의 석유 수입국 2위를 기록
- 천연가스는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입의 약 3.9%인 6억 달러를 수입하여 한국의 천연가스 7위 수입국

<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원 수입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원유 수입 상위 10개국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규모 경제 블록과의 FTA 완성)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은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으로서, EAEU FTA 체결 시 대규모 경제 블록과의 FTA를 완성
- 한국이 EA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FTA 체결 국가 시장 규모는 75.2%에서 77.2%로 확대될 전망
 -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52개 국가와 15개 FTA를 체결
 - 체결 국가 역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ASEAN, 인도 등 신흥국과도 FTA를 체결
 - 한국의 FTA 체결 국가 시장 규모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
 - 만약 러시아를 포함한 EA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FTA 체결 국가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7.2%로 현재 대비 약 2.0%p 확장

4. 시사점

-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 한·EAEU FTA의 조속한 가시화를 통해 수출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러시아 경제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및 내수 시장 규모,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대륙에서 글로벌 경쟁 기업 대비 비교우위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EAEU FTA의 조속한 협상 개시 및 체결이 필요

둘째, 러시아 및 EAEU 국가들과 우호적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 산업 협력 확대 등으로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에너지, 농수산 등의 강점을 보유한 러시아와 제조업 기반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FTA를 통한 투자 확대는 양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대러시아 및 EAEU 회원국별 유망 산업 발굴, 유망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셋째,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나아가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사업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원유 수입의 높은 대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의 자원 개발 사업, 에너지 수송을 비롯한 인프라 개발 사업 등에 참여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될 전망

넷째, 한·EAEU FTA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신북방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현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동북아 및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내용
-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EAEU FTA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HRI**

백 다 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